

022722 주일설교 “변화산” 누가복음(Luke) 9:28-36

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32.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돌아오는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르고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갖고 십자 성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인 오는 4월 17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 서는 ‘사순절(Lent)-40일간의 절기’ 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시일도 40일이었어요.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사순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민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바쁘고, 먹고살기가 참 빠듯한데 말이죠. 또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러할 시대에, 우리의 마음 또한 갈갈이 찢기기 쉬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흩어진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하나로 모이기 위해 사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Transfiguration Sunday"-"변화 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겉모습이 변화되고 주님의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비중이 있는 이야기라는거죠. 사순절을 곧 시작하게 되면서 변화산 사건을 다룬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것만 포인트가 아니라, 이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데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 남자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신비한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는, 귀신들린 아이도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적들과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나?"고 따져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도, 분위기 상으로도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곧 예수님의 세상이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넘버 투이고, 누가 넘버 쓰리인지 따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지. 아니야 내가 오른팔이야...!'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봐서 보면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가 받은 꾸지람(사람의 생각때문에) 이후 팔일쯤 후입니다. 그 때 베드로 야고 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자주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도 했고, 쉬러 가시기도 하고, 가르치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서 학자들은 다볼산(570미터)이거나 헤르몬산(2770미터)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조그마한 언덕 수준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수고스럽게 등반을 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놀라울 정도의 신앙고백을 하고서도 십자가와 고난,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인간적인 생각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6: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과 고백의 순간이 있고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성경 말씀 앞에 이러한 저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아 갑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것처럼 스스로 여길 때도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도 또 한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타이거우즈, 박세리의 공통점이 뭐죠? 최고의 골프 선수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스윙 코치가 늘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최고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아직도 코치가 필요하다니요! 코치가 그 선수들보다 못할텐데도, 그들의 스윙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최고” 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윙을 하다보면요, 이상한데 힘이 들어가고 스윙이 조금씩 틀어지는데요. 해서 늘 코치가 선수들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는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 삶에 헛 바람이 들어가거나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인지 깨닫고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의 감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가진 것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만큼, 특별하게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말하는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도 오직 세명만 체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으면 ‘나는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야! 이거 왜이래?!’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대접도 잘 받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을 특별하게 경험했던 체험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험은 싸인/표지판과도 같다고 했죠. 표지판이 중요한게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고 가는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체험에 집중하구요, 심지어는 집착하기 쉬워요. 체험이 중요한데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무브온 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이 가리키는 곳, 그 표지판이 안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찾아온건 좋았는데, 또 보여 달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를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더더 하게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뭔가 내성 같은 것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는 “만나” 즉,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뭐지?” 라고 부를 만큼 놀라워했지만, 그 만나를 매일 먹다보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격은 없어진지 오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약도 계속 먹으면 몸에 내성이 생겨요. 같은 약, 같은 양이 역할을 못해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듣잖아요. 항상제를 안 먹어본 사람은 조금만 그 약을 투여해도 잘 듣는데, 항상제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복용하던 사람은 아무리 많은 양을 투여해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체험은 중요한데, 체험은 내성이 생기거든요. 체험은 표지판 역할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되는데, 자칫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 머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그것이 이땅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오직 세명만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이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변화산 사건을 추억하며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체험 대신에 오직 성경말씀을 강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샨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때는 이 말을 오용해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각자가 알아서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도 보지 마라. 성경 해석은 교회가 하며, 신부가 하며, 신학 교육받은 사람이 한다. 성도들은 신부가 알려 주는 대로 행하며 살아라.’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리더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면죄부까지 판매했던 때가 있었지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절대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셋 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까지,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까지, 우리 개인의 체험과 해석은 절대시 되지 말아야 하고, 다시말해서 겸손하고도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야 되구요, 말씀을 늘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다녀도 성경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 금방이라도 재림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믿음생활이 허망하다고 유혹했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옹호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회의론과 무신론이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순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준비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금식, 구제,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경말씀을 다시 펼치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디. 그러나 그 황홀한 경험은 곧 사라졌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여전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이 머물고 안주하는 것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곳이 힘들고 험한 광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